

홀트소식

AUTUMN 2025 — VOL.218



홀트소식

www.holt.or.kr



가을이야기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한 조병국 전 홀트부속의원 원장(오른쪽)과 공로패를 시상한 박지혜 씨(왼쪽, 전 홀트일산복지타운 이용인). 두 사람의 환한 미소 속에는 따뜻한 감사와 소중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 기사 19~21쪽)



08



16



26



36



40

Contents

창립 70주년 특집

- 04 ① 사진과 함께 보는 홀트아동복지회 70년의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
- 08 ② 함께 걸어온 70년을 기리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홀트다움'을 다짐하는 자리
- 12 ③ 마음으로 전하는 15인의 축하 메시지 홀트 70주년에 담다
- 14 ④ 사랑으로 이어진 10년, 찬양과 간증으로 채운 감사의 시간
- 16 ⑤ 나눔과 화합으로 하나 된 축제, 창립 70주년 기념 페어

창립 70주년 특별 인터뷰

- 19 ① 생명을 향한 헌신으로 홀트의 역사를 써 내려간 조병국 원장
- 22 ②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지극한 아이 사랑을 기억하며
- 24 ③ 70년의 세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다

아동·청소년복지

- 26 "센베노! 우리는 한국에서 온 드림하이 봉사단이야"

한부모가족복지

- 29 '드림틴즈' 캄보디아에서 희망을 나누다

장애인복지

- 32 함께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첫걸음

지역사회복지

- 34 가족 사랑으로 버무린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의 김장 나눔

국제개발협력

- 36 달리고 웃으며 한 뼘 더 자란 탄자니아 아이들

나눔스토리

- 38 ① 더 큰 사랑, 더 큰 가족을 향한 발걸음 홀트 전국후원회 수련회
- 40 ② 채연·육중완·신성 홍보대사, 아동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 42 ③ 당신이 바로 홀트 히어로입니다! You are the Holt Hero
- 44 ④ 결연아동과 함께 성장한 희망의 여정

- 46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218호(계간) 발행일 2025년 10월 29일 발행인 김정오 편집인 신미숙
발행처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www.holt.or.kr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 좋은 제언 pr@holt.or.kr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성일(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감사

정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허브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인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32-424-0145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53-756-0183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42-586-1983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032-277-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02-331-7040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종이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산'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 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 주세요.



1955년 시작된 작은 사랑의 발걸음은 70년이 지난 오늘, 수많은 아동과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든든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세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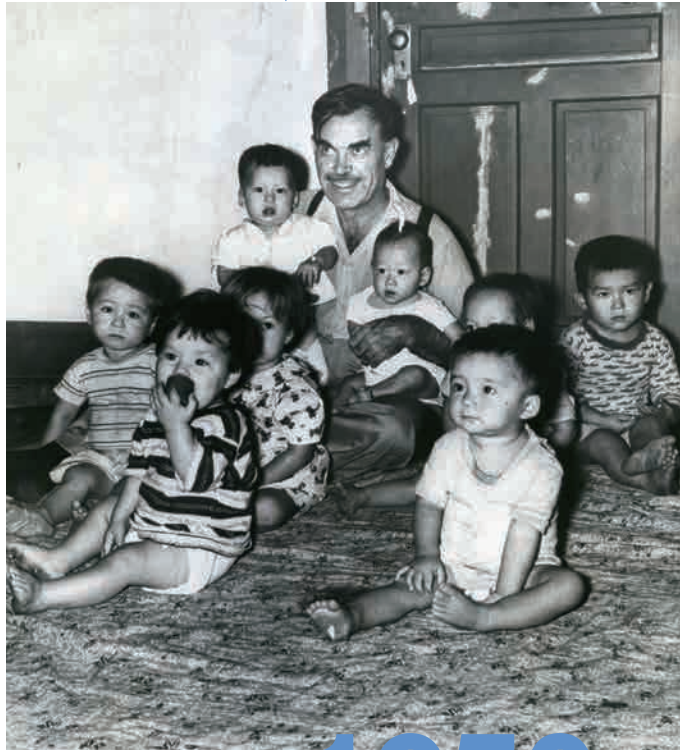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사진 속에 담긴 순간들을 통해 1955년부터 2025년까지 7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함께 나눈 눈물과 웃음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온 희망의 이야기와 앞으로도 이어갈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과 함께 보는 홀트아동복지회 70년의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

홀트 70년 타임라인



1950년대

- 1955.10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 전쟁 고아 8명 입양
- 1956.02 홀트씨해외양자회 설립
- 1958.07 녹번동 아동보호시설 신설

홀트씨해외양자회 설립



의료 봉사 중인 미국인 의사 텐 헤이브와 말리 홀트

1960년대

일산원 시절의 바다 홀트 여사와 아동들



한국 최초 장애아동 특수교육 실시

- 1960.09 해리 홀트 씨 이사장 취임
- 1960.12 재단법인 홀트씨해외양자회 설립인가 취득
- 1962.04 비인가 초등교육부 (완다학교로 명명) 설치
- 1962.08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일산원 (현 홀트일산복지타운) 개원
- 1964.04 해리 홀트 씨 심장마비로 별세

1970년대

- 1972.07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로 법인 명칭 변경
- 1972.08 미혼모상담사업 시작
- 1973.03 부산지부 개소
- 1973.11 서울후원회 창립
- 1974.05 바다 홀트 여사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1975.03 장애아동 위한 완다학교 (현 홀트학교) 정식 개교
- 1975.05 대구지부 개소
- 1975.06 해외 성년 입양인 첫 모국연수 프로그램 실시
- 1977.01 충청, 인천 사무소 개소

미혼모상담사업 시작



서울후원회 창립

홀트부속의원 개원



제1회 홀트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

1980년대

- 1982.01 홀트부속의원 개원
- 1982.03 제1회 홀트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 개최
- 1982.03 전국후원회 창립
- 1983.03 장애인 재활시설 홀트보호작업장 개소
- 1985.11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1986.11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준공 및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창단



홀트보호작업장 직업 재활 프로그램 시작

1990년대

홀트일산요양원 개원



제1회 홀트배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개최

- 1992.03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1994.03 홀트어린이집 개원
- 1995.06 제1회 홀트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개최
- 1995.10 바다 홀트 여사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 1999.01 홀트일산요양원 개원
- 1999.05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 창단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 창단

2000년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선·정혜영 홍보대사 '꿈과희망' 지원금 전달식

- 2000.07 바다 홀트 여사 별세
- 2000.08 말리 홀트 이사장 취임
- 2004.04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2005.0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개원
- 2005.04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2007.07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2009.04 선·정혜영 홍보대사 후원 저소득가정아동 대상 '꿈과희망' 지원사업 시작
- 2009.09 홀트학교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
- 2009.11 말리 홀트 이사장 제21회 아산상(사회봉사 부문) 수상

2010년대

- 2010.01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 창립
- 2010.1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개관
- 2011.05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작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개소
- 2014.04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2015.01 본부 미혼한부모지원센터 개소
- 2015.05 인천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개관
- 2016.01 학대피해아동 쉼터 홀트미추홀 개소
- 2017.05 네팔 홀트드림센터 개소
- 2017.06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획득
- 2017.07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 개소
- 2018.07 홀트강동복지관 개관
- 2019.05 말리 홀트 이사장 별세
- 2019.10 몽골 칭겔테이구 홀트드림센터 개소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개소



홀트공유공방 '가치만들' 개소 및 원데이클래스 시작

- 2021.05 한부모자립지원 공간 홀트공유공방 '가치만들' 개소
- 2025.02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 4년 연속 만점 취득
- 2025.03 인천검암아동보호 전문기관 개관
- 2025.03 인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개소
- 2025.07 홀트사회복지연구소 개소
- 2025.08 몽골 희망드림자립센터 완공 및 개소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 4년 연속 만점 취득



몽골 희망드림자립센터 완공 및 개소

2020년대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의 의미와 엠블럼 변천사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엠블럼 스토리



홀트아동복지회가 걸어온 70년의 연결과 동행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숫자 '70'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사랑과 헌신의 흐름을, 상단에 배치된 두 개의 점은 70년간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성장해온 '아동과 가족'을 형상화합니다. 이 엠블럼이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한 새로운 변화의 여정에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0주년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적응하며, 복지 분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강병인글씨연구소 강병인 작가의 부드러운 글씨체는 60년의 역사를 넘어 변치 않는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50주년



파란색 숫자 '5'는 깨끗하고 맑은 어린아이를, 붉은색과 주황색 곡선으로 표현한 숫자 '0'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온 세상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40주년



홀트아동복지회가 걸어온 지난 4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지구촌 곳곳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창립 70주년 특집 ②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9월 26일(금), 서울 여의도 K-BIZ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1955년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뜻에 따라 창립된 홀트아동복지회가 지난 70년간 '사랑을 행동으로(Love in Action)' 실천해온 송고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 홍보팀 유시연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함께 걸어온 70년을 기리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홀트다움'을 다짐하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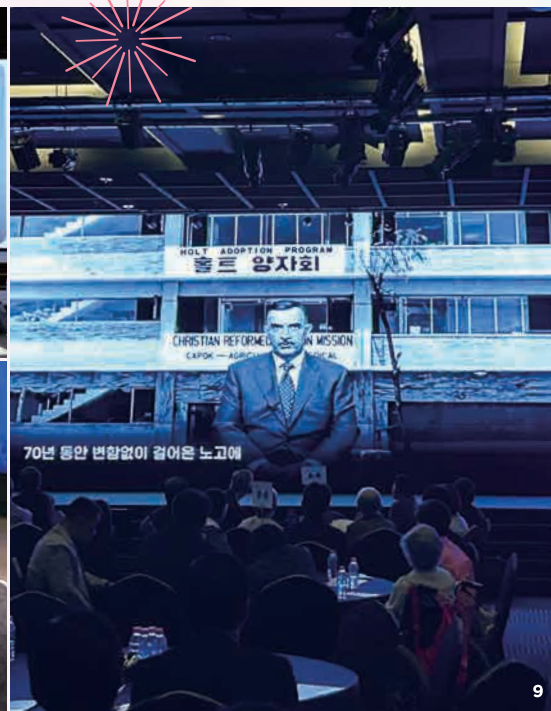
- 1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 2 기념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김정오 이사장
- 3 홀트인터내셔널의 데릭 파커 이사장 (왼쪽)과 댄 스미스 회장(앞쪽 가운데)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했다.
- 4 신미숙 회장의 개식 선언 모습
- 5 조병국 전 홀트부속의원 원장과 선 홍보대사의 환담 장면
- 6 창립 70주년 기념 단체사진



국내의 주요 내빈 및 임직원 등 400여 명 참석

이날 기념식에는 사회복지계 및 정·재계의 국내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홀트아동복지회의 70주년 축하 자리를 빛냈습니다. 데릭 파커 홀트인터내셔널 이사장, 댄 스미스 홀트인터내셔널 회장, 해리 홀트 씨 자녀들을 비롯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김진숙 동방사회복지회장, 이명림 한국사회봉사회장, 서경석 기아대책 대표,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방영택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오창화 전국가족입양인연대 대표,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장,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와 홀트아동복지회 김정오 이사장, 신미숙 회장을 비롯해 선·윤택·박요한·채연·신성 홍보대사, 탐리더스 위원, 전국후원회 회원, 그리고 본부 및 산하시설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기념사와 축사, 70년 역사와 미래 응원

기념식 1부는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홀트학교 '에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신미숙 회장의 개식 선언과 박요한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기념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정오 이사장은 "1955년 해리 홀트·버다 홀트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의 70년 역사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온 선구적 여정이었다"라고 회고한 데 이어 "앞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동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며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데릭 파커 홀트인터내셔널 이사장, 이원우 후원자, 신민규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인사들이 축사에 참여하여 70년 헌신의 의미와 미래 비전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영훈 홍보대사, 육중완 홍보대사는 영상 축전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전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나라 복지 역사 그 자체이며, 70년간

저소득가정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기에 처한 한부모 및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사랑을 실천해온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은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이어 지난 70년간 홀트아동복지회의 진정한 동역자로서 나눔과 헌신을 실천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11쪽 참조).

다가올 100년을 향한 '홀트다움' 미션 선포

이날 기념식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 70년의 값진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담은 '70주년 기념 영상'과 함께, 설립자 해리 홀트 씨를 AI 기술로 구현한 특별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영상 속 해리 홀트 씨는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의 창립 이념과 가치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홀트다움 미션 선포식'에서는 신미숙 회장과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슬로

건 아래 미션 선포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다가올 100년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겠다"라는 새로운 도약의 메시지를 외치며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축하의 의미를 담아 70주년 엠블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한 후, 2부 순서로 마련된 오찬을 함께하며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70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수많은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가정의 희망을 지켜낸 그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홀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홀트다움'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7 영상 축사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주영훈 홍보대사(오른쪽)
- 8 기념식에 참석한 채연(왼쪽)·신성(오른쪽) 홍보대사
- 9 AI 기술로 구현한 설립자 해리 홀트 씨 특별 영상 상영
- 10 신미숙 회장과 직원들의 미션 선포식 장면

공로패



- 1 홀트家 대표 수상 린다 백 고문
- 2 홀트한사랑회 대표 수상 김재일 회장
- 3 조병국 전 홀트부속의원 원장
- 4 홀트인터내셔널 대표 수상 덴 스미스 회장

- 1 수많은 아동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설립자 가족의 지속적인 헌신과 창립 정신 계승
- 2 공개입양 자조모임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과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
- 3 50여 년간 6만여 의료문제 아동과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은퇴 후에도 장애인 의료고문으로 헌신
- 4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하고 홀트의 글로벌 복지 협력 증진

감사패



- 1 서영자 전국후원회 고문
- 2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 3 선홍보대사
- 4 윤택 홍보대사
- 5 박요한 홍보대사

- 1 전국후원회 활동으로 헌신적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안정적 후원 기반 마련
- 2 미혼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함께하며 사회공헌 및 협력 사업에 동참
- 3 저소득가정아동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속적 나눔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4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동참해 든든한 '기댈 어른'의 역할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 전파
- 5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이끌며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동참

마음으로 전하는 15인의 축하 메시지

홀트 70주년에 답다



홀트아동복지회가 걸어온 70년의 시간은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동행으로 빛났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홀트와 함께해온 15인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리더와 오랜 후원기업 및 후원자, 홍보대사, 그리고 자립준비청년까지... 한마음으로 보내온 이들의 따뜻한 목소리에는 지난 70년의 감사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 이래 장애아동 재활과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하며 수많은 아동과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014년부터 미혼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물품 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해 왔습니다. 홀트와의 동행은 KB손해보험에도 큰 울림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뜻깊은 여정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지난 70년간 아동과 가족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캐논코리아는 2019년부터 '맘편한가족앨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며 아동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해온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홀트와 함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박경우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홀트아동복지회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변화시킨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현대차증권 또한 홀트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희망을 나누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

지난 70년이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채워졌듯이 앞으로의 70년도 함께 쌓아갈 헌신 위에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힘과 마음을 모아 가장 연약한 이웃들의 걸을 지키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이원우
48년 장기후원자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는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한 아이, 한 가정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늘 애써온 홀트 가족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7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홀트의 앞길에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서영자
전국후원회 고문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아동과 한부모, 장애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소중한 꿈을 키워준 홀트의 발걸음은 사랑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수 있어 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가 더 많은 이웃들의 삶 속에 빛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
홍보대사

70년을 한결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온 홀트아동복지회가 70년간 이뤄낸 성장을 보며 홍보대사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특히, 여러 홍보대사님과 연대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택
홍보대사

슬픔과 상처가 가득한 이들 곁에 홀트아동복지회가 희망의 친구가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홀트와 함께하셨고 오늘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홀트를 통해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박요한
홍보대사

70주년을 맞이한 홀트아동복지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70년간 '홀며들다(홀트가 세상에 스며들다)'라는 말처럼 꾸준히 세상을 희망으로 채워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겠습니다.



채연
홍보대사

홀트아동복지회가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에 동행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홀트가 70년간 굳건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 오래오래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육종완
홍보대사

사랑과 나눔의 길을 70년 동안 걸어온 홀트아동복지회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귀한 발자취가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홍보대사로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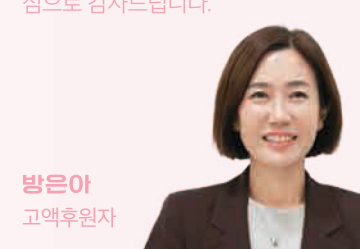
신성
홍보대사

창립 70주년이 또 다른 발돋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트라는 거목은 지난 70년간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도 무성하게 뻗었습니다. 그만큼 비바람도 많이 맞지만, 강인하게 버티으며 자랑스러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지게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최명신
전국·서울후원회장

홀트아동복지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의 윤활유 같은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덕분에 힘을 얻고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 반갑습니다. 70년간 이어온 홀트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은아
고액후원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홀트의 응원 덕분에 도전과 성장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꿈꿀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 없이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민규
자립준비청년 촉구감독

찬양과 간증 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던 특별한 예배가 9월 19일,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움채플에서 열렸습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 10주년과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찬양콘서트는 7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뜨겁고 감동적인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글·사진 임팩트기금팀 이세화



홀트가족사랑예배를 빛낸 출연자와 홀트가족들. 사진 왼쪽부터 박요한 목사와 현지선 사모, 송정미 CCM 가수, 신미숙 회장, 모유진 작가, 정시은(자이언제이) 아티스트, 주영훈 홍보대사

홀트가족사랑예배 10주년 찬양콘서트 이야기

사랑으로 이어진 10년, 찬양과 간증으로 채운 감사의 시간

Love in Action,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홀트가족사랑예배(이하 홀가예)'는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자 찬양 사역자로 활동 중인 박요한 프렌즈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정기후원 참여를 이끌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예배입니다. 특히 올해는 홀가예 10주년과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Love in Action,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목사와 교인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와 기쁨의 찬양콘서트로 개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무대

이날 콘서트는 작곡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홀트아동복지회 주영훈 홍보대사가 진행을 맡아 특유의 유머와 따뜻한 소동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특별한 게스트들이 함께해 풍성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송정미 '국민 대표' CCM 가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다: 나눔과 축복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표곡 '축복송' 찬양과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에도 함께한 인연이 있는 송정미 CCM 가수는 홀트 70주년 기념 홀가예 10주년으로 열린 이번 무대에도 올라 아동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홀트 탐리더스 위원이자 회화 작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인 정시은(자이언제이) 아티스트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완주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 10주년 찬양콘서트 진행을 맡은 주영훈 홍보대사



송정미 CCM 가수 토크 장면(위)과 현판 전달식 후 신미숙 회장, 최병락 목사, 박요한 목사(사진 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아래)

한부모 슬하의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살아오며 겪은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했던 비전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 활동가 모유진 작가는 위탁가정에서 자라 자립준비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고난의 여정 속에서 회복과 소망, 감사함의 의미를 담은 자작곡 '영접기도'를 노래하며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요한 목사는 간증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꿈꾸며 "후원과 나눔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함께 만든 감사와 기쁨

간증과 기도, 찬양으로 뜨거웠던 현장에는 감동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최병락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지난 70년간 아동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사역은 한국 교회와 사회가 함께한 나눔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길 소망한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홀가예를 통해 후원자, 교회, 아티스트가 한마음으로 아동과 가정을 위해 함께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의 여정에 함께하길 부탁드립니다.

한부모·장애인·자립준비청년·시민이
어우러진 페어 현장 스케치

나눔과 화합으로
하나 된 축제,

창립 70주년
기념 페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70년 동안
아이들과 가족 곁을 지키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 감사한 여정 가운데,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부모·장애인·자립준비청년이
함께한 플라마켓, 홍보대사와 후원자들의
따뜻한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웃음 속에
나눔의 기쁨이 커져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마음을 모은 그 하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내딛는 희망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글 사진 홍보팀 박지은
한부모가족지원팀 유호정
아동복지팀 배지수



사랑으로 하나 된, 다채로운 축제의 현장

지난 9월 25일, 합정 딜라이트스퀘어는 이른 아침부터 활
기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을 맞아 열린 이번 페어는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
고, 시민·후원자·임직원이 함께 어울려 나눔의 가치를 나누
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부모·장애인·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다과가 가득한 플라마켓, 후원사에서 기부한
물품이 판매된 전국후원회 바자회, 해외아동 그림 공모전
특별 전시, 무료 포토존, 홀트아동복지회 아카이빙존, ESG
체험존과 캠핑 휴식존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홀트전국후원회 바자회
가 운영한 부스는 총 8개 후원사가 기부한 2,613점의 물품
이 50~8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윤택 홍보대사와 육중완 홍보대사가 ‘스페셜 게
스트’로 참여한 부스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두
홍보대사는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따뜻한 미소로 시민들을
맞이하며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홍보
대사들의 재치 있는 멘트에 현장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시
민들은 “좋은 물건과 함께 좋은 추억도 얻어간다”라며 기쁨
을 전했습니다. 준비된 제품들이 빠르게 소진되자, 뒤늦게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다”라며 아
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화가 심안수 씨가 신미숙 회장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홀트강동대학 부스)

마음을 잇는 나눔, 뜨거운 참여의 현장

이번 페어는 단순한 판매의 장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홀트강동복지관의 발달장애인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부스에서는 시민들의 웃음과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받아 든 한 시민은 “화폭 위에 제 얼굴이 담겼다는

것보다, 작가님의 마음과 온기가 전해져 더욱 소중하다”라며 그림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이 그림은 발달장애인 화가와 시민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교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캐논코리아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무료 사진 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시민들은 전문가의 손길로 찍힌 사진을 받아들며 “이 기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웃음과 설렘,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낸 경품 추첨 코너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뜨거운 나눔의 현장을 함께한 한부모 셀러는 “오늘 판매를 통해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제 노력과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플리마켓부터 그림 전시까지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페어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홀트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미숙 회장은 “70년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페어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외아동 그림 공모전 특별전 국민심사 참여 모습



홀트아동복지회 아카이빙존



생명을 향한 헌신으로

홀트의 역사를 써 내려간 조병국 원장

사랑의 청진기로 새 생명을 심다



전쟁과 가난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였던 수많은 아이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선물한 한 의사가 있습니다. 6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주치의로 살며 사랑의 청진기로 기적을 빚어낸 조병국 전 홀트부속의원 원장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의 삶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의 송고한 발걸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불가능을 넘어선 헌신의 발자취

어린 시절, 전쟁의 참혹함 속에 여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낸 조병국 원장은 그 아픔을 가슴속에 묻으며 훗날 소아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심각했던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싶었던 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1958년, 수련의 의료봉사로 홀트씨해외양자회(홀트아동복지회 전신)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 의사를 거쳐 1976년, 홀트부속의원 원장으로 부임한 뒤, 마지막 진료를 마치기까지 50년 넘게 의료적 문제를 가진 아동과 장애아동의 주치의로 헌신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던 아이, 중증 장애를 가진 채 버려진 아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지 않은 핏덩이들을 살리기 위한 그의 송고한 헌신은 암흑 속을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의 불씨였고,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이 낳은 아름다운 기적들

당시 궁핍한 사회와 낙후된 의료 기술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들의 실낱같은 목숨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병국 원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하루에 13장까지 써야 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과연 의사가 맞나?’ 회의감이 들었지요. 그러나 의학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의학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살아나는 순간, 그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지요.” 그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의료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아이들의 병을 치료하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후원자를 찾아 미국, 독일, 노르웨이



6만 여 아동의 주치의로 평생을 헌신한 조병국 원장

양된 소녀는 훗날 간호사가 되어 매년 의약품을 들고 모국을 찾습니다. 어떤 입양인들은 그의 90세 생일을 기념하며 회고록 영문판을 출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굳건한 신념

조병국 원장은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 덕분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기적 같은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조병국 원장은 여전히 홀트아동복지회의 큰 어른으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인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단지 의료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송고한 소명감이었습니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음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조병국 원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찰대 위에서 꿈지락거리던 아이가 양부모의 사랑으로 교육받고 믿음직한 성인이 되어 모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자신이 양부모가 되고, 장애인들의 후원자가 되는 인생 여정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그것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선물이 또 어디 있을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칩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반세기를 넘어 이어진 사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70주년, 조병국 원장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이 등을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조 원장을 향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신념과 사랑으로 조 원장은 의사로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을 넘어 심장병 아동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의사의 역할 그 이상을 감당했습니다.

1993년 정년 퇴임 후에도 2008년까지 15년간 홀트부속의원에 복귀해 청진기를 다시 잡았고,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완전히 접은 뒤에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말리 홀트 이사장과 함께 장애인들을 돌보며 의료자문과 해외입양인 봉사자 통역 지원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고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조병국 원장의 발걸음을 통해 살아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다 입양된 아이가 훗날 또 다른 심장병 아이를 입양했고, 미국으로 입양된 한 소년은 뇌성마비의 한계를 딛고 소아 재활 의학과 교수가 되어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또 독일로 입

2012년 제12회 비추미여성대상 시상식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한 뒤 시상자 박지혜 씨(전 홀트일산복지타운 이용인자 '영혼의 소리' 합창단원)와 함께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지극한 아이 사랑을 기억하며

홀트아동복지회 설립 초기 간호사로 헌신했던 '이승주' 씨와의 만남

홀트아동복지회 설립 초기 해리 홀트 씨를 도와 아이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데 헌신했던 이승주 씨(89세)를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승주 씨는 1956년부터 1962년까지 홀트아동복지회의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시기를 함께했던 초창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홀트(家) 묘소와 홀트기념관을 둘러보는 중에도 홀트 씨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는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 홍보팀 남지인



비다 홀트 여사(오른쪽), 미국인 간호사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승주 씨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

이승주 씨와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은 1956년 설립자 해리 홀트 씨가 '홀트씨해외양자회'를 설립하며 고군분투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자리를 찾던 이승주 씨는 홀트 씨가 마련한 아동보호시설(효창동)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미국인 여 선교사의 소개로 해리 홀트 씨를 찾아갑니다. 그날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승주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도 착 안기는 아이들이 안쓰러우면서도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 일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이라고 느꼈어요. 내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했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홀트 씨도 그런 저를 많이 믿어주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묻자, 한국전쟁 직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며 겪었던 가슴 아픈 기억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자갈돌로 피가 흐르는 자기 팔뚝을 닦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설립자 홀트 씨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이승주 씨

내던 일곱 살짜리 혼혈 아동의 사연부터 완다학교 설립의 계기가 된 홀트 씨의 첫째 딸 완다 씨(1961년 멕시코 선교 중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 그리고 북한의 부정적 선전에 홀트 씨가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까지... 홀로 된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려는 간절함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었던 홀트 씨의 신념과 의지를 가까이에서 본 이승주 씨였기에 그 아픔은 더 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감화시킨 아이를 위한 빛나는 사랑

당시 많은 아이가 바이러스성 폐렴과 이질 등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료시설도 변변찮던 시절,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했는지 이승주 씨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번동 시절부터 미국인 의사 텐 헤이브가 상주하며 아이들을 진료했어요. 귀한 생명이 자꾸 희생되자 홀트 씨는 녹번동에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곳에 웬만한 병원도 갖추기 힘든 인큐베이터와 전문 의료장비까지 마련해 놓고 아이들을 보살폈지요. 서울대 출신의 의사들까지 참여하는 임상병리 연구팀을 꾸려 혈액검사, 바이러스 검사 등도 실시했어요."

당시 이승주 씨는 서울대 부설 간호학교 공부와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어렵사리 학업을 마치고 정식으로 간호사가 됐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모자랐던 이곳에서 이승주 씨의 존재감은 비다 홀트 여사가 쓴 『원방에서 내 자녀들을 오게 하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간호원들과 보조간호원들의 책임자인 이승주 양이 보여준 아이들을 위한

빛나는 사랑은 많은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그녀는 하나님 이 보내주시는 사람입니다."(1961년 8월 25일 자 일기)
그 무렵 해리 홀트 씨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터를 찾아다니는 끝에 경기도 일산에 부모 잃은 아동뿐 아니라 장애아동들도 돌볼 수 있는 일산원(현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승주 씨는 간호사이자 보모로, 10대 소녀들의 훈련담당으로, 또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의 중재자로 일인다역을 해냈습니다. 이승주 씨는 몸은 고되었지만 당시의 소중한 경험들이 훗날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끝내 못다 한 한마디, "홀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1962년 이승주 씨는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었던 미국 유학을 결행했습니다. 1960년대 거의 유일하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던 폴브라이트 장학금까지 받은 이승주 씨는 그해 가을, 미네소타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결혼과 임신으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도 간간히 바다 여사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홀트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1964년 4월)을 접하고는 큰 버팀목을 잃은 듯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주 씨는 "평생의 은인이었던 홀트 씨께 '할아버지,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를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설립자 해리 홀트 씨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이승주 씨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은 70주년을 맞이한 홀트아동복지회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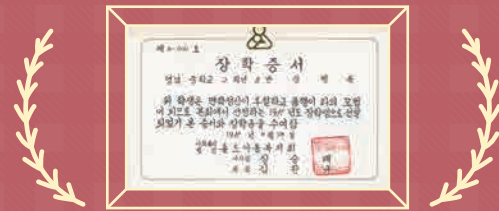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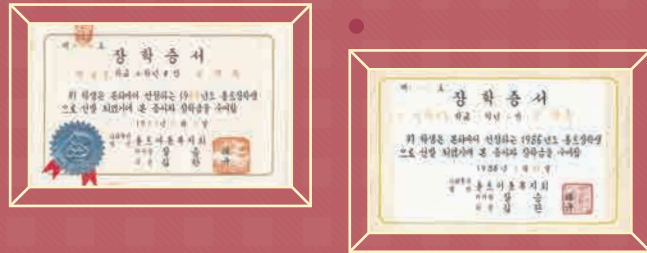
홀트기념관 내 홀트 씨 모자이크화 앞에서

70년의 세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70년간 수많은 국내·외 아동과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며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원자들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뤄왔습니다. “홀트는 나의 가족”이라 말하는 제2회 ‘홀트장학생’이 고액후원자 ‘탐리더스’가 되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사진 임팩트기금팀장 권혜란

홀트와 함께한 꿈,
Love in Action으로 완주한
강병록 탐리더스 위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물 받은 학창 시절

강병록 위원은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의 오랜 후원자로 26년 동안 정기후원을 이어오며 후원자 행사 및 후배 장학생을 위한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강병록 위원의 홀트를 향한 애정은 4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병록 위원은 대구 영남중학교 1학년 때인 1983년, 제2회 홀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힘써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홀트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큰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트장학생’이라는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후원자로부터 미국 프로야팀 캔자스시티 로열스 구장의 염서와 스웨터, 맛있는 간식을 선물 받은 경험은 어린 강병록 위원의 꿈을 향한 여정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홀트를 향한 감사한 마음으



로 이어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자’는 초심을 지키며 지금까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홀트장학생에서 후원자가 되다

강병록 위원은 1996년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갖고 그 후 결혼해 1999년 첫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 위원은 당시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 만삭의 아내 손을 잡고 홀트를 방문해 정기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홀트장학생으로 도움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도 저의 후원에 흔쾌히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후 강병록 위원은 홀트의 오랜 후원자이자 장학생 선배로 인연을 이어오던 중 2012년 홀트에서 열린 ‘후원자 대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인 제가 어렵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것만 어렵듯이 알고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홀트장학금을 받으며 바르게 성장했고, 사회로 나와 홀트 후원자로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 주어 감사와 행복을 선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병록 위원(왼쪽에서 네 번째)의 탐리더스 위촉식

지난 7월 23일, 고액후원자 ‘탐리더스’로 위촉된 강병록 위원은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성을 기울이고, 후원금액도 늘려가겠다”라며 “주위에 모범이 되는 홀트인이 되어 저와 같은 후원자가 더 많아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Love in Action, 70년의 아름다운 선순환

현재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인 강병록 위원은 은퇴를 준비하며 강연, 사회공헌 활동 확장,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 완주 횡수 누적 등 제2의 삶을 향한 준비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병록 위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는 홀트의 100주년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는 소망이 담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홀트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후원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욱 반갑고 행복할 것 같다”라며 “홀트의 자랑스러운 열매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선한 영향력의 리더가 되길 희망한다”라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42년 전 가난으로 힘들었던 학창 시절, 든든한 후원자의 믿음과 사랑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강병록 위원의 스토리에 잔잔한 감동이 더해집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족의 행복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강병록 위원과 같은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시절 강병록 위원(윗줄 오른쪽)의 가족사진



강병록 위원(왼쪽)의 중학교 졸업사진



윤택 홍보대사가 함께한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 체육대회 단체사진

“센베노! 우리는 한국에서 온 드림하이 봉사단이야”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 6박 7일의 여정

*센베노는 몽골어로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8월, 홀트아동복지회 '드림하이 2기' 대학생 봉사단이 몽골 칭겔테이구에 위치한 몽골 홀트드림센터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드림하이'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해외봉사활동입니다. 봉사단은 현지 아동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각각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의 든든한 '기댈 어른'이 되어준 윤택 홍보대사와 함께한 몽골에서의 뜻깊은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 백솔 사진 홍보팀 남지인



한글로 시작한 첫 만남

어색한 우리 사이를 빨리 풀어줄 방법은 자기소개! 자신만의 한글 이름표를 만들고, 한국어 문장을 배우며 단원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더불어 폼 클레이 놀이와 팽이 꾸미기도 진행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놀이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과 금세 가까워져 봉사단원들에게도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위생 교육도, 요리도 놀이처럼!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아이들의 기초 위생습관 형성을 위해 손 씻기 활동, 위생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과 놀이를 결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의 소중함을 익힐 수 있도록 했죠. 이후에는 밥과 김을 활용해 주먹밥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주먹밥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울적이고 만들며 가까워진 하루

둘째 날은 더 활기찬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아기 상어' 노래에 맞춰 울동도 배우고, 딱지치기와 비석치기도 하고, 과학 원리를 활용한 드론 플라잉볼을 만들며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플라잉볼이 더 멀리 날아간다면 자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양한 단체게임을 즐기며 아이들은 물론 단원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감동적인 마지막 순간, 아이들은 손 편지와 작은 선물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몽골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꼭 만나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팀을 나누어 생필품을 가지고 아이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밝고 순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베풀기 위해 갔다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돌아온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닿았기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기를, 이 따뜻한 경험이 서로의 삶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정도 함께해 주세요.



드림하이 단원의 활동 소감



박소현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첫 해외봉사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흔치 않기에 더욱 새롭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인이자 바른 청년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기영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며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현정

몽골 친구들의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눔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와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지승민

드림하이라는 좋은 기회로 몽골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드림하이에 참여하기 전까지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만 왔지, 거의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이방인인 저희를 친구처럼 대해 주는 모습을 보고 봉사라는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드림린즈' 캄보디아에서 희망을 나누다

함께 웃고 배우며 자란 작은 손길, 더 큰 세상을 향한 첫 걸음



홀트아동복지회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이하 드림린즈)' 2기가 캄보디아 트라피앙 안찬 지역의 홀트드림센터에서 잊지 못할 봉사 여정을 마쳤습니다. 10명의 청소년 봉사단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고 더 큰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드림린즈가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사진 한부모가족지원팀 유호정



드림린즈 파견식 단체사진

우리, 하나 되어

홀트아동복지회는 청소년들의 힘찬 미래와 더 큰 세상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드림틴즈 2기를 모집하고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15~18세 청소년 10명을 봉사단원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드림틴즈는 지난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세계시민교육을, 6, 7월에는 비대면·대면 사전모임 등 준비 과정을 가지며 협동과 신뢰를 배우는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단원들이 점차 친근한 친구가 되었고, 각자의 작은 다짐이 모여 큰 힘이 되면서 '나'에서 '우리'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한 첫걸음

8월 4일에 열린 파견식에서 단원들은 파견증서를 받고 각자의 다짐을 낭독한 뒤, 가족과 선생님의 응원 속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단원들은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첫날밤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봉사단원으로서의 책임과 세계시민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어 찾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는 아이들의 환영 속에 긴장을 풀고 따뜻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의 축하 공연



셋째 날, 본격적인 활동인 'By Your Side'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표와 가방을 꾸미며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태양광 선풍기와 로켓비누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성취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운동회 'Ready Get Set, Go!'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달리고 웃으며 협동의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날 진행된 아동 가정방문과 환경정화 캠페인, 생일축하 프로그램은 가족의 소중함과 작은 손길이 공동체의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 생일축하 장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들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

작은 손길로 이어진 큰 울림

짧지만 특별했던 봉사활동은 단원들에게도, 드림센터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가방을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같이 뛰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단원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울림은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되돌아와 단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We Are The Future!

이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 두 명과 선생님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하는 'We Are The Future'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롯데월드, 해수욕장 등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캄보디아 아동들은 “언젠가 멋진 어른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희망으로 이어질 내일을 꿈꾸며

짧지만 깊었던 5박 7일의 여정은 봉사를 넘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단원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나눔의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드림틴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이어질 또 다른 시작입니다. 드림틴즈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이 함께 심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다시 마주할 더 따뜻한 세상을 기대합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 한국문화 체험

함께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첫걸음

장애인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더(+)' 안전한 내일! 앱 개발에서 활용까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장애인의 디지털 안전권 보장과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기 활용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더(+)' 안전한 내일!'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앱 개발에서 체험 및 활용, 지역사회 확산까지 이어지는 2개년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사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 홍은희



장애인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더(+)' 안전한 내일!

'더(+)' 안전한 내일! 앱은 장애인과 다양한 정보 취약계층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간단한 문장과 일러스트, 음성 안내, 터치 게임, OX 퀴즈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풀며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앱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실 확인하기, 온라인 예절 지키기, 주변에 알려 도움받기라는 총 4가지 핵심 주제가 담겨 있고, 각 주제는 게임과 퀴즈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되어 사용자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라'에서는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구별해보는 미션이 주어지고, '가짜 정보를 찾아 삭제하라'에서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비교하며 구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히어로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는 배운 내용을 퀴즈로 다시 확인하며 사용자가 사이버 세상의 '디지털 안전 히어로'가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체험, 그리고 진짜 변화

복지관에서는 실제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더(+)' 안전한 내일! 앱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앱을 직접 사용해 보고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직접 앱을 체험한 발달장애인 이광수(가명, 남, 33세) 씨는 "예전엔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도 몰랐는

데 퀴즈를 풀어 보면서 지금은 누르면 안 되는 것, 물어 봐야 할 것들을 알게 됐어요. 재미있어서 혼자서 여러 번 해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한 보호자는 "앱에 나오는 문장이나 그림이 당사자 눈높이에 잘 맞춰져 있어 흥미롭고, 무엇보다도 집에서도 제가 아이와 함께 편하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하는 디지털 안전

복지관은 '더(+)' 안전한 내일! 앱이 단순한 교육 도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보호 장치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 체험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관과 특수학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캠페인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역사회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 디지털 기기 확장 개발 등 다채로운 확산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내일!'은 점차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전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은 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사이버 범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응할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디지털 보호 콘텐츠입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역사회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 다운받기



발달장애인 대상 '더(+)' 안전한 내일! 일대일 교육(왼쪽) 및 체험활동(오른쪽) 모습

홀트대구
종합사회복지관



홀트가족자원봉사단
전체 기수가 함께한
특별한 나눔 활동

가족 사랑으로 베풀린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의

김장 나눔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의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은 1997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29기까지 이어 오며, 매년 가족 사랑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해 왔습니다. 지난여름,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봉사단원들은 김장 나눔을 위해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1기부터 29기까지 전 기수가 참여한 특별한 날로, 이번 활동에는 총 22가족, 47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굵은 날씨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사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 이경민



※ 일부 이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얼굴로 처리했습니다.



배춧속 넣기 활동

가족 사랑을
세상에 뿌리세요!



배춧속 버무리기 활동



전 기수가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

김장 활동에 앞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전 기수의 봉사자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복지관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29기(범어제, 소금, 다나, 푸른지구) 가족들은 선배 기수들의 따뜻한 환영과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앞으로 함께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김장 활동은 시작부터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하는 따뜻한 진심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의 구호인 '가족 사랑을 세상에 뿌리세요'를 외치며 본격적인 김장 활동이 시작되자, 어른과 아이 모두가 일손을 보탤했습니다. 배춧속을 채우는 손길마다 정성이 담겼고 곳곳에서는 가족끼리, 기수끼리 협력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은 김장 포장 활동뿐 아

니라 작은 손 편지 쓰기에도 동참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짧지만 따뜻한 글귀를 적어 김치 박스에 하나하나 붙이며 마음을 보탤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가족들의 사랑과 아이들의 진심이 함께 담긴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165가구에 전해진 정성 가득한 김치

매년 여름 진행되는 김장 활동은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따뜻한 마음이 모여 총 219만 원의 후원금이 마련되었고, 이 금액으로 신선한 김장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손질, 양념 만들기까지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복지관 대상자 78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87명 등 총 165가구에 전달되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뒤에는 신규 기수와 수료 기수 가족이 함께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김치와 건강히 여름을 날 수 있는 물품을 들고 찾아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치를 베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이웃을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은 준비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 함께 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잇는 훈훈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김장은 세대를 아우르는 봉사의 장이 되었고, 참여한 모든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다가올 겨울 활동인 연탄봉사를 기약하며 앞으로도 홀트가족자원봉사단은 가족 사랑을 세상에 뿌려 나가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어르신 가정 방문 물품 전달



달리고 웃으며 한 뼘 더 자란 탄자니아 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가 만든 웃음과 우정의 특별한 운동회



홀트아동복지회의 후원으로 탄자니아 마구룸바시 초등학교(Magurumbasi Primary School)에서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2025 스포츠&게임 데이(Sports&Game day)'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운동회에서 케코 므왕가 초등학교(Keko Mwangi Primary School)와 마구룸바시 초등학교 1,204명의 학생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달리고 웃으며 한 뼘 더 성장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 현지 NGO WISE 직원, 지역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므레마(Mr. Mrema) 구청장도 자리를 함께해 아이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글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사진 WISE 제공



'2025 스포츠&게임 데이'에서 다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아이들

스포츠로 배우는 소중한 삶의 가치

'포용, 기쁨, 그리고 아동의 성장을 위한 스포츠'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운동회는 아이들에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아이들은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협력, 자신감, 질서, 존중심 등 소중한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자루 뛰기부터 네트볼 경기까지, 웃음 가득한 하루

이번 운동회에서는 다양한 경기들이 펼쳐지며 학생들과 관중 모두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먼저 자루 뛰기에서는 아이들이 자루에 들어가 힘차게 결승선을 향해 달렸고, 관중들의 응원 속에 마구룸바시 초등학교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열린 6학년 줄다리기에서는 힘과 협력이 돋보였으며, 케코 므왕가 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악에 맞춰 자리를 차지하는 의자 뺑기 게임에서도 케코 므왕가 초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두며 활약했습니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의자 뺑기 게임



열정 가득한 네트볼 경기 현장



축구 경기 우승자들이 모여 찰칵!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의 풍선을 지키며 다른 친구의 풍선을 터뜨린 풍선 방어 게임에서는 두 학교에서 모두 우승자가 나와 승부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축구 경기는 케코 므왕가 초등학교의 선제골로 열기를 더했고, 결국 케코 므왕가 초등학교가 뛰어난 기량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네트볼 경기에서는 두 학교의 여자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마구룸바시 초등학교가 승리하며 이날의 운동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시간

이번 운동회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놀며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경기가 치러졌지만 행사는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WISE 직원, 교사, 지역 관계자들 간의 협력도 깊어졌고 아이들을 응원하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고 즐기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 하루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탄자니아 아동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운동회는 끝났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추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홀트 창립 70주년 기념,
제43회 전국후원회 수련회 참가기



더 큰 사랑, 더 큰 가족을 향한 발걸음

홀트 전국후원회 수련회



공로패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목원배 광주후원회 이사, 최명신 전국·서울후원회장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1박 2일간 서울 마포구 합정 딜라이트스퀘어와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2025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홀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홀트아동복지회 주관, 서울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 11개 후원회에서 약 15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와의 70년 동행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 임팩트기금팀 이정미 사진 홍보팀 박지은



창립 70주년 기념 페어 '전국후원회 바자회' 부스에서 셀러로 봉사 중인 서울후원회 회원들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바자회

수련회 첫날은 합정역에서 열린 '홀트 70주년 페어 바자회' 참여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후원회와 봉사자가 셀러로 참여한 바자회와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학업·취업 지원 사업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 친환경 뷰티 브랜드 와프랩, 으똘 50안경, 아이웨어 브랜드 기스톤, 한의학산업 전문 기업 (주)한퓨어, 다이어리 제작사 이앤디, 홀트레이닝 전문 헬스케어 브랜드 앳플리, 아웃도어 용품 공식수입사 시티헨즈 캠퍼니에서 물품 후원으로 동참했습니다.

홀트 70주년 기념, 전국후원회 수련회

이후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우리회 탐리더스 위원이자 방송인인 강도현 MC의 사회로 홀트 70주년, 전국후원회 수련회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테너 전영호 교수와 소프라노 우지연의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 해외



감사패 수상자들과 신미숙 회장(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김희정 전 대구후원회장, 나영주 본리후원회장, 김찬금 전 포항후원회장, 한선희 고양후원회 부회장 (정일채 고양후원회장 대리 수상)

봉사활동 '드림하이' 참여 봉사단원의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후원회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동에 동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홀트 70주년 기념 바자회와 특별후원으로 모인 5,300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총 12명의 회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최명신 전국·서울후원회장, 목원배 광주후원회 이사가 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박영옥 서울후원회 고문, 이정현 서울후원회 고문, 김희정 전 대구후원회장, 유금순 부산후원회장, 나영주 본리후원회장, 정일채 고양후원회장, 김찬금 전 포항후원회장, 염지원 대전후원회장, 이선미 하남후원회장이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홀트 전국후원회, 앞으로 100년의 동행을 향해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이번 홀트 70주년 기념 전국후원회 수련회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자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최명신 전국·서울후원회장은 "전국후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지속적인 나눔으로 더 큰 사랑, 더 큰 가족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 전국후원회는 이웃들 곁에서 홀트의 70년, 그리고 전국후원회의 43년 발자취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사랑과 나눔을 연결하는 100년의 여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후원회 회원들과 신미숙 회장이 후원금 전달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창립 70주년 기념
신규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 스케치

채연·육중완·신성 홍보대사, 아동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홍보대사로 채연, 육중완, 신성 씨를 위촉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온 이들이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축하의 박수와 훈훈한 나눔의 메시지로 가득했던 위촉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글 홍보팀장 오진희 사진 홍보팀 유시연

지난 7월 2일, 홀트아동복지회의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가수 채연, 뮤지션 육중완, 트로트 가수 신성 세 분이 새롭게 위촉되어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촉식 현장에는 2008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해온 윤택 홍보대사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는 총 12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채연 홍보대사

도움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육중완 홍보대사

기부와 선행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성 홍보대사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주년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홀트의 긍정적 영향력 널리 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

신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된 세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분들입니다. 채연 홍보대사는 2003년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아 왔으며, 최근 방송과 공연, SNS를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연탄 나눔, 유기견 보호소 봉사 등 여러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중완밴드의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육중완 홍보대사는 여러 음악 프로그램과 가족 예능 등에서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혈병 어린이 돕기 거리 공연 기부, 악기 기부, 재해 피해 복구 성금 기부 등 꾸준한 나눔 활동 또한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선한 에너지로 홀트아동복지회의 나눔 활동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타는 트롯맨’ 준우승으로 주목받은 신성 홍보대사는 해외 의료 구호물품 전달, 고향 행사 출연료 전액 기부 등 방송을 통한 꾸준한 사회 공헌을 이어오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메시지가 다양한 세대에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서 커다란 자부심

한편, 이날 위촉식에 함께한 윤택 홍보대사는 2008년 위촉 이후 17년간 ‘홀트 바자회’,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든든한 기댔 어른으로서 그들의 꿈을 응원해 왔습니다. 윤택 홍보대사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따뜻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 온 분들이 홀트의 동행자로 함께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라며, “70주년을 맞아 홍보대사들과 함께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한 우리 기관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세 분의 새로운 홍보대사와 기존 홍보대사들의 든든한 동행 속에 아이들이 희망을 꿈꾸고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택 홍보대사와 함께한 나눔의 현장 '2025 고아웃(GO OUT) 캠프' 이야기



당신이 바로 홀트 히어로입니다!

You are the Holt Hero

홀트아동복지회는 윤택 홍보대사와 함께 태안 몽산포 해변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아웃도어&캠핑 페스티벌 '제19회 고아웃(GO OUT) 캠프'에 참여해 'Holt H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고아웃코리아의 초청으로 NGO로서는 최초로 참가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아동과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국에서 모인 약 3,000명의 캠핑 마니아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글·사진 나눔기획팀 이예진



홀트 히어로 부스 경품 추첨

현장 참여자들이 전한 따뜻한 이야기

나눔이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홀트를 처음 알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1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만들기 체험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참여자2

홀트 히어로 경품 당첨 가족



윤택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바닷가 플로깅 활동

사랑을 행동으로, Holt Hero의 실천

홀트아동복지회 부스에서는 아이들을 지키는 힘(Power), 이웃을 향한 사랑(Love), 그리고 마음을 모은 행운(Luck)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직접 'Holt Hero'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을 경험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함께 걷는 7,000걸음, 모두가 만든 나눔의 현장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Walking Hero' 캠페인은 친환경 뷰티 브랜드 와프랩이 함께하며 따뜻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7,000걸음 걷기 인증을 통해 총 300명의 참여자가 21만 보를 달성했고, 이에 따라 청소년용 T 세럼 500개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되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캠프 현장에서는 △위기임상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부스운영, △산불 피해 긴급모금, △윤택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해변정화 프로젝트-플로깅 활동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따뜻한 참여로 모두가 함께 만든 희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Holt Hero,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실천

이번 행사를 위해 △아웃도어 용품 공식수입사 시티헨즈컴퍼니 △친환경 뷰티 브랜드 와프랩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녹스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 △요가&필라테스 전문 브랜드 밸런스 △21년 기술력 화로대 바비큐 그릴 전문 브랜드 꾸버스 △온라인 간식마켓 노른자마트가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자연과 캠프를 사랑하는 고아웃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향한 따뜻한 연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후원자 및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결연아동과 함께 성장한

희망의 여정

전성현 결연후원자
나눔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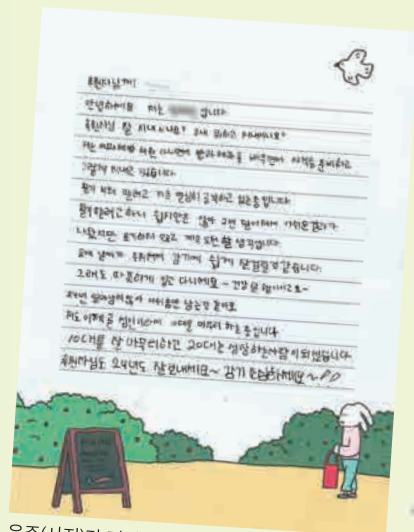


지하철을 타고 가던 어느 날, 전성현 후원자는 ‘나눔’이라는 단어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후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홀트아동복지회 결연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결연아동이 바로 윤주(가명)였고, 그 인연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중히 이어져 왔습니다.

글 나눔지원팀 김호인

초등학생에서
어엿한 고등학생으로

전성현 후원자와 윤주의 인연은 2018년, 윤주가 초등학교 6학년 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는 캐릭터가 그려진 귀여운 편지지에 이야기를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윤주는 더 차분하고 성숙한 글과 편지지를 사용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후원자는 지난 몇 해 동안 윤주가 자라온 과정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원자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윤주가 정서적으로도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와 선물을 함께 전했습니다. “윤주가 진심 어린 응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원 금뿐 아니라 마음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라는 전성현 후원자의 말처럼 결연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특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윤주(사진)가 전성현 후원자님께 보낸 감사편지



※ 아동의 이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얼굴로 처리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향한 응원

전성현 후원자는 미국에 갔을 때 현지에서 커피 관련 용품을 보다가 바리스타를 꿈꾸는 윤주가 떠올라 선물을 보냈습니다. 윤주 역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성현 후원자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며 주고받은 선물은 ‘결연’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깊은 정서적 교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의 교류는 윤주의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특별한 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전성현 후원자는 예전부터 언젠가 꼭 큰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졸업과 함께 결연이 종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끝에 태블릿 PC를 선물했습니다. 윤주가 대학생이 되면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바리스타를 준비하며 다양한 카페 레시피를 기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한 선물입니다.

“윤주가 건강하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윤주가 ‘나중에는 저도 후원자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마음 깊이 전해졌습니다”라는 후원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 보낸 성장의 순간

전성현 후원자는 윤주와의 시간을 돌아보며 “윤주와 함께 나도 성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시작된 후원은 대학원 진학, 졸업과 결혼을 거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곁에 있었고 윤주의 성장과 함께 전성현 후원자의 삶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순환이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전성현 후원자는 자라면서 늘 베푸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아 왔고 배려 깊은 아내의 삶 또한 자신이 나눔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백은 지난 시간을 함께한 윤주와의 결연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나눔의 기쁨과 의미를 삶 속에서 깊이 느끼게 해준 특별한 여정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든든한 응원자로 결연아동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 전성현 후원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

덕양구 지적재조사팀, 적극행정 경진대회 상금 전액 기부
 7월 9일, '2025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양특례시 덕양구 지적재조사팀(이창성·임소화·김현준)이 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수상팀은 "상금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후원 배경을 전했습니다.



본부

캐논코리아, 한부모가정 가족사진 촬영 후원 협약 진행
 7월 24일, 캐논코리아(대표이사 박정우)와 한부모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mom(맘)편한 가족앨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한부모가정 54가구에 가족사진 촬영 서비스와 앨범 및 액자 제작, 캐논코리아의 포토프린터와 인화지 등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mom(맘)편한 가족앨범'은 한부모가족의 정서 안정 및 가족 간 관계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부

주님의교회 후원금 및 감사패 전달식 진행
 8월 25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주님의교회(담임목사 신종철)와 후원금 및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교회 창립 3주년 헌금으로 마련된 총 7,743만 9,000원을 대학생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과 취·창업을 돕기 위해 후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본부

방송인 강도현 대표,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
 8월 25일, 방송인이자 MC로 활동 중인 케이치엔터테인먼트 강도현 대표의 탐리더스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강 위원은 이번 위촉을 통해 시설보호아동이 학업과 전공 교육을 이어가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정기부를 약속했습니다. 2021년, 라이브 커머스 'VOGO 스타워즈' 우승 상금 기부 등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꾸준히 응원해온 강도현 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부

(주)글로벌표준인증원,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
 8월 13일, 인증 전문기관 (주)글로벌표준인증원(대표 전재금)의 탐리더스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인증 서비스와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서온 (주)글로벌표준인증원은 이번 위촉을 통해 프랑스 EVE VEGAN(이브비건) 인증 수익금의 1%인 1,500만원의 후원을 약정하며 한부모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주)글로벌표준인증원 전재금 위원의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부

'희망 Dream 자립센터' 완공 및 공로훈장 수여
 8월 21일, 몽골 칭겔데이구에서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사장 김정각, 이하 재단)이 후원한 희망 Dream 자립센터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재단은 2019년 몽골 홀트드림센터 건축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센터 완공까지 함께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날 칭겔데이구청장은 현지 협력기관인 몽골 홀트에는 감사패를, 본회 신미숙 회장에게는 공로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지부

현대자동차 노사, 지역 내 아동을 위한 후원금 1억원 전달
 8월 11일, 울산시청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H-희망드림 출산양육물품'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지역 내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총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출생신고를 한 1,000세대에게 출산양육물품(10만원 상당) 키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청지부

'아름다운사람들', 한부모 및 영아 위해 후원금 전달
 8월 18일, '아름다운사람들(대표 이상현)'이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과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수청소년 자원봉사단체 '아름다운사람들'은 2018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은 긴급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함께하는 시니어 디지털 버디프로젝트’ 진행

7월 23~31일, 2025년 취약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사업인 ‘함께하는 시니어 디지털 버디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소그룹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후에는 참여자 모두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실습을 통해 실생활 적용 능력도 높여갈 예정입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진로체험 ‘드림네비게이션’ 진로캠프 실시

8월 13~14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네비게이션’ 진로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걸으며 홍보대사의 안내를 통해 대학생활을 체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클로버

행복 더위사냥! 대전클로버 원데이 여름캠프

9월 4일, 대전클로버 가족들은 풀리즈카페로 원데이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실내 활동은 무더위와 야외 활동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던 한부모들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덜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놀이 체험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가족 친화적 여가 활동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주클로버

한부모가족 나들이 워터힐링캠프 실시

8월 7일, 무더운 여름을 맞아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한 재충전의 시간 워터힐링캠프를 중흥골드스파에서 실시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한층 돈독해졌으며, 웃음과 힐링의 순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소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소속감을 형성하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뜰

약물오남용(금연) 교육 실시

8월 7일,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와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금연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담배의 유해성분, 담배의 악영향, 전자담배의 진실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통해 양육자로서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부모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아름뜰

아름뜰과 함께하는 양육교육

7~10월 4개월 동안, 월 1회 양육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양육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나누는 시간을, 8월에는 1:1 개별 코칭을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자녀와의 놀이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소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을 위한 첫 자조모임 진행

8월 18일,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을 위한 첫 자조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조모임에서는 ‘김유라 작가와 함께하는 경제교육’을 통해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원예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부모 엄마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학용품 지원

8월 18일,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용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된 학용품 세트에는 가방과 학용품, 간식 등이 담겨 아동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동들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이번 지원사업은 물품 나눔 이상의 의미를 지닌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해외후원** 해외 취약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 4개 해외사업장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결연후원** 향기 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 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후원합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한 70년,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향하여

- History** 오랜 시간, 아이들과 가족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 Opportunity** 누구나 사랑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 Love** 사랑을 행동으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Try** 끝없는 시도와 변화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HOLT 70th》에 담긴 특별한 기록을 만나보고 더 큰 사랑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창립 70주년 기념 발간물
《HOLT 70th》

* 본 도서는 비매품이며 e-Book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280일.**

누군가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버텨내는 시간.
가난과 편견으로 위험에 노출된 **엄마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02-331-7073~6

2,800원 소액기부



아이에스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친환경 도시개발 / 재건축 사업)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폐자동차 해체, 배터리 재활용, 건설 폐기물 등 종합 환경관리 사업)

아이들에게
행복한 희망의 세상을!

(학대 피해아동 긴급구호 / 자원사업 및 사회공헌 실천)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아이에스동서



계열사

아이에스차주(주) | 아이에스동서(주) | (주)일신아엔비 | (주)일신개발 | (주)오션다앤씨 | 홍양레미콘(주) | 아이에스에코솔루션(주) | BTS-Technology | 티씨이(주) | 안성이엔티(주) | 인성기업(주) | 인성모터스(주) | (주)영흥산업환경 | (주)피주비엔알 | 굿드에코(주) | (주)상원이알케이 | 환경에너지솔루션(주) | 아이에스해운(주) | 프리엔파트너스(주) | (주)이오르소프트 | 백년건강지킴이(주) | (주)바운스 | (재)중앙광학문화재단